

NOBLE SAVAGE

이재훈

아우트라인을 보여주고자 했고, NOBLE SAVAGE 는 그 첫 번째 chapter 이다.

본인이 사용하는 고귀한 미개인의 개념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표피적 개념을 역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실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택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소통의 한계성과 인간 관계의 불건전한 진화에 대한 문제성을 들어내고자한 개념이다.

물질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그 풍요와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어찌 보면 우아하며 고귀한 인간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 진다. 그리고 그 풍요의 장막은 편리라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 우리를 젖어들게 만든다. 하지만 그 풍요라는 장막의 안은 그만큼 새로운 더 많은 사회적 행동의 제약과 관념들이 생겨나 있다.

우리는 그 이분법적인 장막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그것이 사회의 첫 모습인 것처럼 당연한 가치인양 치부해버린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맹목적 믿음은 소통을 통한 관계의 가치판단 기준이 되어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누어버린다.

이러한 기준이 현실에서도 같은 기준이 되어 판단되어지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인간의 맹목적 믿음은 이상적인 사회의 기준점으로, 현실의 관계성은 비정상적인 진화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띤다. 즉, 현실과 이상의 서로 다른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교육에서 배우는 사회와 현실의 사회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익히게 된다. 이처럼 이상적인 사회적 소통의 기준과 현실적인 사회적 소통의 기준에서 오는 괴리감 속에서 적응하는 자와 적응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양립된 사회적 통념들은 우리 의식 속에서 관계성에 의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불건전한 모습들로 진화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들 옳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치부하게 되는 경우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혼란과 갈등이 계속 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지나 그 통증을 당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이 양립된 사회적 통념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 뒤엉켜 현실사회의 또 다른 적응력으로 길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념들은 인간관계, 집단의 관계들에 있어서 불건전한 진화를 하게 된다.

겉모습은 이상적인 사회의 고귀한 인간의 이상적인 행동들을 강요하는 사회적 관념, 그리고 그 관념과 양립된 현실의 가치판단 기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것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으로써의 미개인.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